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문영권

전화 064-729-4422 / 팩스 0502-193-8359

보도자료
2022. 6. 7.(화)

제 목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영 올레!'의 첫 실시

개 요

-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 ·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 ·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고영두) ·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와 함께 새로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영 올레!(손 잡고 올레!)'를 첫 실시함
 - 2022. 6. 3.(금) 제주 올레5코스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8명과 함께 걸으면서 제주 자연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였음
 - ※ '손 심영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법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km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km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임
-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손 심영 올레!'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도입 · 운영할 예정

1

실시 배경

-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은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선도 프로그램 도입에 뜻을 모아 2022. 5. 19. '손 심엉 올레!'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2022. 6. 3.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8명과 함께 '손 심엉 올레!'를 첫 실시하였음

2

「손 심엉 올레!」 주요 실시 내용

- 2022 6. 3.(금) 제주 올레 5코스*에 있는 '남원포구~위미항(약 7km, 3~4시간 소요)' 구간에서 현재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8명과 함께 '손 심엉 올레!'의 첫 걸음을 하였음

* (사)제주올레 선정, 남원포구~쇠소깍다리 총 13.4km 구간

-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보호관찰소는 '손 심엉 올레!'의 대상 청소년 선정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여 상처의 치유와 어른의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 8명을 선정함
- (사)제주올레는 올레 5코스를 선정하고, 청소년과 함께 걸으면서 제주의 자연·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
-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청소년들과 함께 걸으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제주지검 검사장 박종근, (사)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부회장 오순자,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김종환이 참석하여 청소년과 함께 걸으며 그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첫 발을 딛은 '손 심영 올레!'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기원함

- 제주지방검찰청 박종근 검사장은 청소년들에게 「손 심영 올레!」를 통해 올레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격려

-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손 심영 올레!」를 함께 하는 청소년들도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개척한 제주올레를 걸으면서 제주자연과 문화를 알고, 스스로를 깨달아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함

-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청소년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

- '손 심영 올레!'에 첫 참가한 8명의 청소년들은 약 7km에 이르는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위미항 바닷가에 있는 정자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등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음

- 청소년들은 걷는 동안 밝게 웃으면서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밖에서만 검사를 만나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하는데 서귀포까지 와서 바다를 보며 숲길을 걸으니 너무 좋다',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여 좋다'는 이야기들도 나누는 등 허심탄회한 모습으로 적극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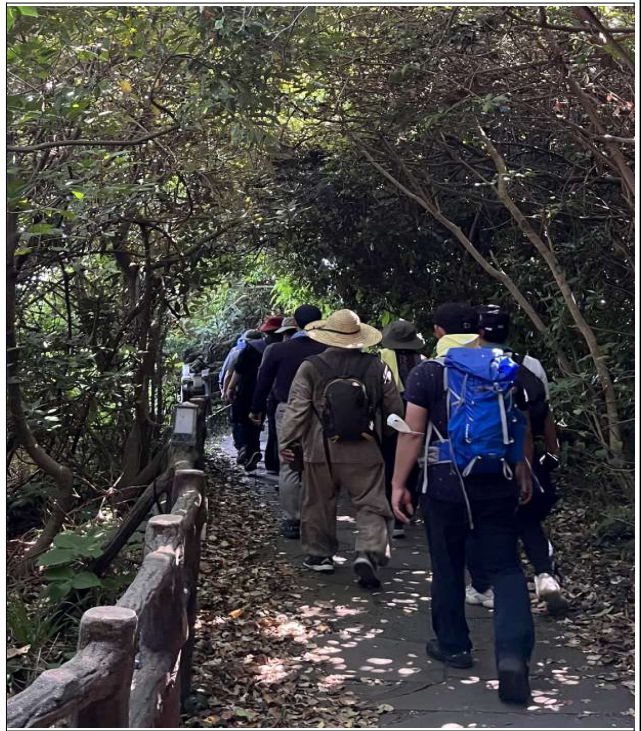
3

향후 계획

-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사회와 함께 '손 심영 올레!'를 체계화·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실효적인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손심영 올레!'로 모인 유관기관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 다양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예정임. ☑

※ 별첨 : '제1회 손 심영 올레!' 관련 사진 참조

‘손 심영 올레’ 첫 실시



‘손 심영 올레’ 첫 실시

